



황금양털 찾아 모험 떠나는 아르고 원정대

그리스 로마신화 5

이윤기 지음

아이손은 왕위를 끌려 빙기 위해 그리스 각지에서 50여명의 영웅들을 모아 황금양털을 찾아 원정을 떠난다. 이들은 아르고스라는 사람에게 크고 빠른 배를 만들게 한 뒤 이 배를 타고 모험을 떠난다. 이렇게 지어진 배가 바로 아르고 호이다.

지난 8월 별세한 소설가이자 번역가 이윤기 씨의 대표작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그리스 로마신화5-아르고 원정대의 모험'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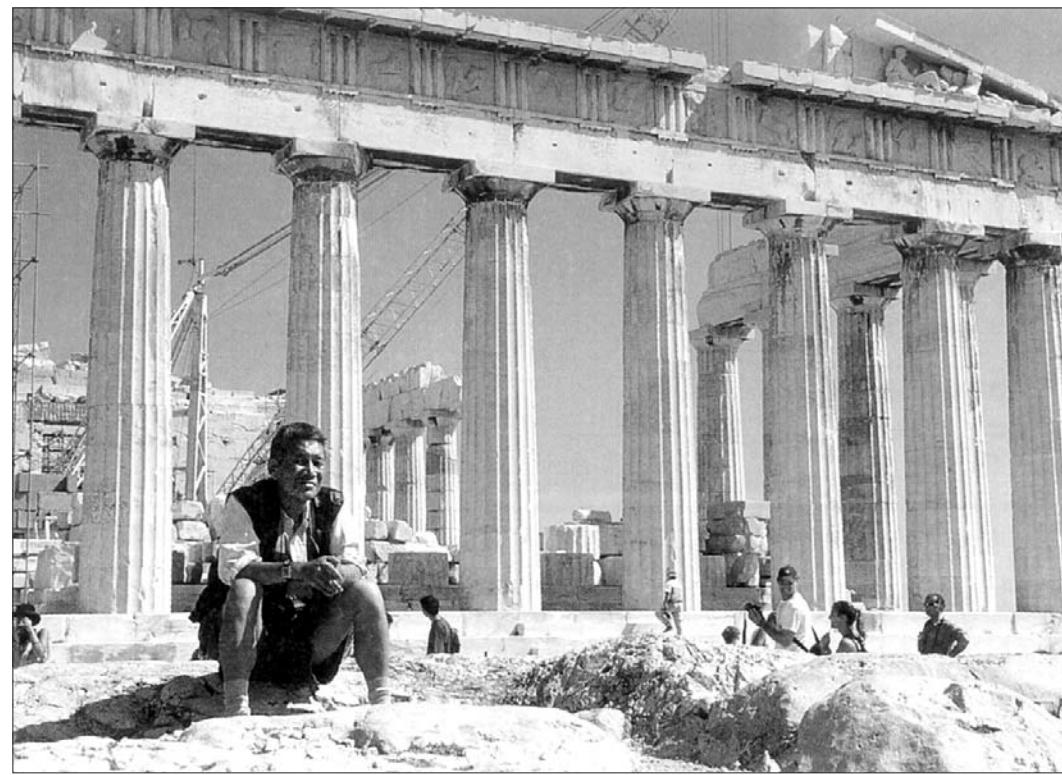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는 국내에 그리스·로마 신화 열풍을 사롭게 불러일으켰다.

그간 4권이 출간됐는데 모두 20만부 가까이 팔렸다. 장례를 마친 이씨 유족들이 완성 단계에 있는 원고 파일로 발견한 '아르고 원정대의 모험'은 그리스·로마 신화 가운데 가장 역동적이고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책의 서문에 이미 그리스·로마 신화 전문가로 대접받던 이씨가 1999년 처음 그리스와 터키 등을 방문, 감각에 젖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또 그리스·로마 신화 세계를 향한 자신의 원정에 관한 감회를 기록했다.

주요 내용은 그리스의 영웅 아이손이 황금양털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 아르고 원정대 이야기. 이윤코스의 왕좌를 되찾기 위해 모험을 감행하는 아이손과 아르고 원정대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고인은 197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하얀 헬리콥터'로 입선해 등단한 고인은 1998년 중편소설 '숨은 그림찾기'로 동인문학상을 받았으며 2000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그리스 로마신화5-아르고 원정대의 모험'이 나왔다. 사진은 생전 그리스를 찾은 이윤기씨의 모습.

활을 겨누듯이 겨냥하고 쏜다. 먼 길을 가자면 높은 산도 넘고 깊은 물도 건너야 한다. (중략) 잔잔한 바다는 결코 트튼한 배사람을 길러내지 못한다. 신화적인 영웅들의 어깨에 무동을 타면 우리는 더 멀리 볼 수 있다. 내가 영웅 신화를 쓰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지 다른 데는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아손의 모험담을 주제로 한 수많은 예술가들의 그림과 조각들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돋는다.

고인은 197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하얀 헬리콥터'로 입선해 등단한 고인은 1998년 중편소설 '숨은 그림찾기'로 동인문학상을 받았으며 2000

년대 들어서는 소설집 '두물머리', '나비 네티' 등을 내며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쳤다.

또 '장미의 이름' '그리스인 조르바' 등 고인의 번역서를 냈다.

한편 그의 유작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영웅전설' (가제·민음사) 등도 출간을 앞두고 있다.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가 신화 속 영웅들의 모험담을 다뤘다면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영웅전설'은 실제 존재했던 고대 그리스 시대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웅진지식하우스·1만35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야만적 형벌제도 고발

잭 런던의 마지막 장편



'아성이 부르는 소리' '강철군화' 등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스트리커를 남긴 미국 작가 잭 런던(1876~1916년)의 마지막 장편소설 '별 방랑자'가 번역·출간됐다.

샌 쿠엔틴 교도소에 수감됐던 에드 모렐이라는 실존인물의 경험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으로, 온몸을 육죄는 '구속복'을 입혀 고문하는 무자비하고 야만적인 형벌제도를 고발하면서 극한 상황 속에서 살아나려는 인간의 의지를 그렸다.

숨 가쁜 서스펜스, 음악과도 같은 서정적인 문체, 인간에 대한 심오한 연민을 담은 위대한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궁리·1만2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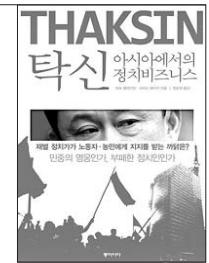
탁신 아시아에서의 정치…

파숙 풍파이·베이커 지음

'뛰어난 경영능력까지 갖춘 민중의 영웅' '돈으로 권력을 얻고 그 권력으로 다시 돈을 벌어들인 위험한한 인물' 등 현재 부정부패 혐의로 해외 도피 중인 탁신 친나와 전 태국 총리에 대한 평가는 찬탁신과 반탁신으로 극명하게 엇갈린다.

파숙 풍파이 첫 출판곤 교수와 언론인 크리스 베이커 부부가 문제의 인물 탁신의 사회·경제 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쓴 책 '탁신 : 아시아에서의 정치비즈니스'가 번역·출간됐다.

책에는 탁신 전 총리가 태국 사회에 어떻게 등장하고 몰락했는지, 그가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은



탁신은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고 富 축적했나

탁신은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고 富 축적했나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관찰한 내용을 현장 깊 있게 풀어냈다.

중국인이 친나와 가족의 역사적 배경부터 미국 유학과 경찰 출신인 탁신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 경찰 인맥을 동원해 이동통신, 위성 등 각종 사업으로 거대한 부를 축적한 경위 등을 자세히 담고 있다.

특히 불과 몇 년 사이에 꿈팅이 랑탕방탕의 당시으로 정치에 입문한 탁신이 1997년 금융위기와 헌법개정을 기회로 집권당인 민주당의 틈틈을 비집고 정치적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과정은 인상적이다.

2부 '방콕 전투'에서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아초에 근대주의자, 민족주의자로 자신을 포장했던 탁신이 포퓰리스트(대중 영합주의자)로 변모하고, 결국 쿠데타로 실각하여 정치적 맘喟을 택함으로써 초대위기에 봉착하게 된 과정과 함께 그가 태국 정치,

사회·문화에 끼친 영향을 자세히 설명한다.

또한 책에는 탁신의 경제, 사회, 문화정책과 군부 및 정치인들의 역학관계, 그에 따라 지지층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도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 저자들은 '탁신은 위대한 영웅이기도 하지만 더 뛰운 정치인이다' 하다. 엄청난 돈을 벌기 위해 정계에 진입한 비즈니스맨이지만 의지와 상관없이 저도자로 등극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가 영웅으로 다시 돌아올지 부패 정치인으로서 정계에서 영원히 사라질지는 또 한 번의 충선을 앞둔 태국 국민의 선택"이라며 탁신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

태국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포퓰리스트 지도자의 정치와 정책에 대한 훌륭한 분석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아시아·1만8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탁신은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고 富 축적했나

10월 27일(수)

▲광주여대신학회 신학 전공 청년 주원상 단편소설 10월 27일(수)

▲광주여대신학회 신학 전공 주원상 단편소설 10월 27일(수)

▲광